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OK 뉴욕사무소: 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2026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
- CNBC: 미 스케줄 교대 근무자, 만족도 좋다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탄탄한 미국 경제로 주식 2분기 최고 실적 기록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확연히 늘어

[오일]
- Politico: 전문가들의 '올여름 휘발유값 폭등" 예측 틀려
- CNBC: 오일 가격 소폭 상승…미 이란의 도하 회담 엇갈린 메시지로
- Bloomberg: 미 재무장관, "중국만 이란 원유 구매하고 있다"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트럼프 관세 환급, 기업들에 실적 호재로 작용

트럼프 행정부]
- WSJ: 연방 대법원, 트럼프의 '출생 시민권' 축소 거부

[주택]
- WSJ: 4월에 미 주택 가격 상승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글로벌 선사 Maersk, 향후 가이던스 올려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2026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

-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 입니다.

보고서

CNBC: Do you really, really love your job? Then you're not alone, according to surprising results from this survey
미 스케줄 교대 근무자, 만족도 좋다

- 미 소비자 심리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교대 근무자들의 업무 만족도는 지난 1년간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 화요일 발표되었다. 인력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Deputy는 조사 결과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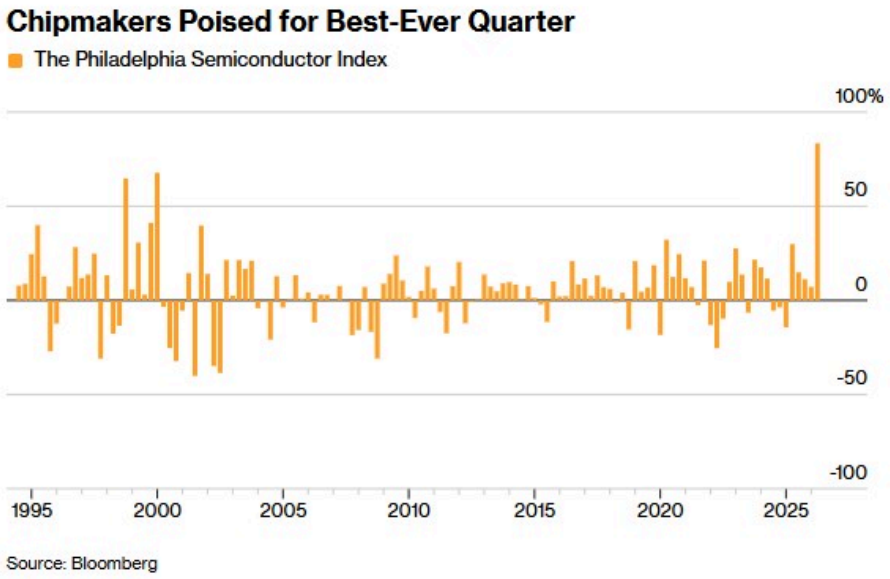
- 조사 대상자 중 "교대 근무가 끝난 후 긍정적인 기분을 느꼈다 답한 비율은 78.9%로, 지난해보다 0.5%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.
- 반면 불만을 느낀 비율은 지난해 6.62%에서 5.9%로 감소하며, 4년 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Climb on Signs US Economy in Good Shape
탄탄한 미국 경제로 주식 2분기 최고 실적 기록

- 경기 회복 신호와 반도체주 상승세에 힘입어 미 증시가 6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기록하며 마감했다.
- 소비자 신뢰지수와 구인 건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3개월간 S&P500 가치를 8조 달러나 늘린 이번 랠리가 계속 이어졌다. 나스닥 100은 1% 상승 중이며 주요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의 분기를 기록했다.
- 최근의 경제 데이터들은 기업 실적 성장을 뒷받침할 경기 동력을 입증하고 있다. 이란 전쟁기 물가 급등이 소비 심리와 임금을 위축시켰음에도, 탄탄한 소비 덕분에 고용 수요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Hormuz Traffic Climbs as Supertankers Sail Into Persian Gulf
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확연히 늘어

-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대한 최근 공격 이래로 이 해협의 통행량이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더 많은 오일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을 운항하고 있다.
- 어제 월요일 현재 원유 등 원자재 선박 24척이 쌍방으로 운항했는데 오늘 화요일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. 크고 작은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다는 것이다.

- 이들 유조선은 약 1천1백만 배럴의 원유를 적재할 수 있으며 선사들은 선박 운항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Politico: Energy experts said gas prices would stay high. Why were they wrong?
전문가들의 '올여름 휘발유값 폭등" 예측 틀려

- 당초 전문가들은 올여름 휘발유 값이 치솟으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경고했다.
-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, 기름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떨어졌다. 정점을 찍었던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만에 갤런당 70센트나 폭락했으며, 원유 가격도 지난 2월 폭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.
-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시장을 강하게 압박한 트럼프의 개입 등이 맞물리면서 휘발유 값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.

기사

CNBC: Oil prices set for steep monthly drop as Trump, Iran issue mixed messages on talks in Qatar
오일 가격 소폭 상승...미 이란의 도하 회담 엇갈린 메시지로

- 미국과 이란이 도하에서 열기게 되는 회담에 대해 엇갈리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.
- 트럼프는 화요일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,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.
- 이처럼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는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임시 평화협정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.

기사

Bloomberg: Bessent Says Only China Buying Iranian Oil, Others Are Wary
미 재무장관, "중국만 이란 원유 구매하고 있다"

-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다시 제재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이란산 원유를 구매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, 이것이 이란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.
- 그는 "제재 당시에도 이미 이란산 원유를 사고 있었던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사지 않고 있다. 이 때문에 이란산 원유는 여전히 할인된 가격에 중국과 거래되는 중이다"라고 덧붙였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Bloomberg: Trump Tariff Defeat Is Market Tailwind 'No One Is Talking About'
트럼프 관세 환급, 기업들에 실적 호재로 작용

-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폐지로 일부 기업들이 환급금을 받게 되면서 실적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- 지난 1분기 약 40개 기업이 환급금을 언급했으나 실제 수익으로 인식한 곳은 8개에 불과한데, 2분기부터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- 이번 관세 환급은 일회성 요인일 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아니다. 하지만 일부 기업의 순이익, 마진, 잉여현금흐름을 예상보다 끌어올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끌어낼 수 있다.



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WSJ: Justices Reject Trump's Bid to Curb Birthright Citizenship
연방 대법원, 트럼프의 '출생 시민권' 축소 거부

- 오늘 화요일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'출생 시민권(속지주의)'을 축소하려던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.
- 대법원장은 1868년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"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"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며, 헌법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다.
- 이로써 임기 첫날 불법 체류자나 단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제한하려던 트럼프의 시도는 무효가 되었다.

기사

[주택]

WSJ: U.S. Home-Price Growth Edged Up in April
4월에 미 주택 가격 상승

- 미 전국 주택 가격을 측정하는 S&P 케이스-실러 미국 주택가격지수(S&P CoreLogic Case-Shiller National Home Price Index)는 3월에 0.7% 상승한

데 이어, 4월까지의 12개월간 연간 기준 0.8% 상승했다.
- 그러나 인플레이션 속도가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앞지르면서,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치 기준으로 미국의 주택 자산 가치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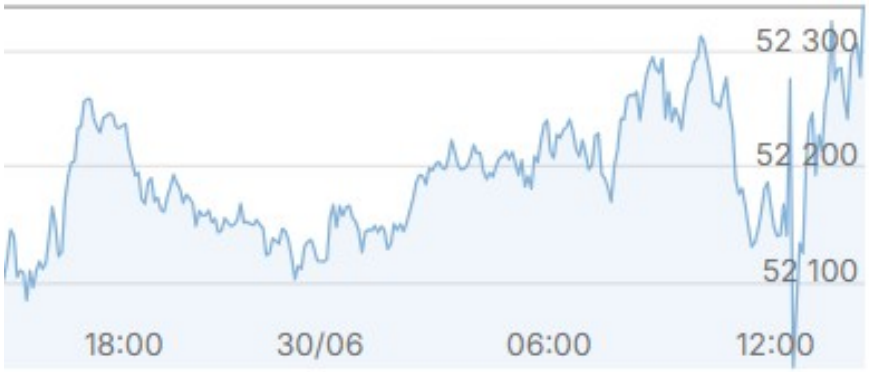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Maersk Lifts Guidance on Strong Demand, Higher Freight Rates
글로벌 선사 Maersk, 향후 가이던스 올려

- 글로벌 선사 A.P. Moller-Maersk는 강한 수요와 운임 상승을 이유로 2026년 연간 실질 감가상각전영업이익(EBITDA) 전망치를 80억~100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다.
- 이 덴마크 해운 그룹은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강한 수요와 단기(Spot) 시장 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을 꼽았다.
- 이 회사는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 물동량이 기존 전망치의 상단 수준인 약 4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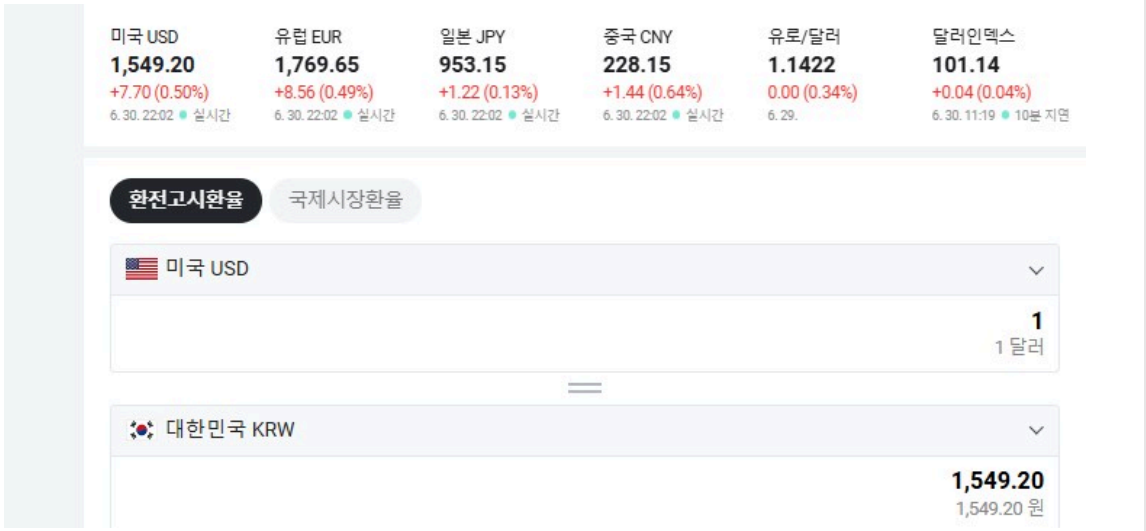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341.20	+159.1	+0.30%
US 500	7,481.60	+41.3	+0.56%
Dow Jones	52,331.63	+148.89	+0.29%
S&P 500	7,480.95	+40.52	+0.54%
Nasdaq	26,099.64	+279.50	+1.08%
S&P 500 VIX	16.86	-0.79	-4.48%
Dollar Index	100.91	+0.033	+0.03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25/32	4.887	0.020
10-Year Note	4.375	-2/32	4.408	0.029
7-Year Note	4.25	-2/32	4.288	0.035
5-Year Note	4.125	-2/32	4.183	0.034
3-Year Note	4.125	-23/32	4.144	0.029
2-Year Note	4.125	-22/32	4.141	0.026
1-Year Bill	0	0/32	3.975	0.010
6-Month Bill	0	0/32	3.976	0.018
3-Month Bill	0	1/32	3.823	0.048
1-Month Bill	0	0/32	3.675	-0.01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